

資 料

#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I)

- 중 · 상류 30-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응답자 508명(남녀 각 254명씩)은 모두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인등과 관련된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질문지를 지역사회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의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5개의 주요요인을 얻었다: 1) 자녀-가족관계 대한 긍정적 효과, 2)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 3) 능력감퇴경향, 4)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 그리고 5)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 대 소외변인-. 특히 외국의 예에서와는 달리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가족의 화목과 응집성을 중요시하는 우리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학의 급속한 발달과 영양상태의 호전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동시에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전체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0-14세 집단은 30.39%(1986년)에서 26.09%(2000년)로, 15-49세 집단은 55.59%(1986년)에서 55.61%(2000년)로 50-59세 집단은 7.38%(1986년)에서 8.71%(2000년)로, 60-64세 집

단은 2.50%(1986년)에서 3.62%(2000년)로, 그리고 65세 이상 집단은 4.24%(1986년)에서 5.97%(2000년)로 증가하고 있다(남철현, 김혜련과 홍현주, 1984).

이와같은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적 변천은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의 유지,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회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직 국민복지연금제도나 기타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후복지의 문제가 모두 국가나 사회가 관이 아닌 "가족"의 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노인복지와 만족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노인들을 부양해야하는 중년 성인들의 태도, 편견, 그리고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이와

1) 이 연구는 1986년도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의 연구비 지원(제목: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연구")으로 이루어졌다.

2)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1985-86년도)은 연세대 대학원의 심재용교과 조정희양의 도움이 컸으며, 본 논문의 집필(1988년도)에는 김향규양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 세 석사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할 따르다.

같은 중년기 성인의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의 구조와 요인”을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노인 및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과 태도구조 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중년층 또는 노년층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노인정, 노인교실등을 통한 집단적 조사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형태의 의견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심리측정법의 원리를 따라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내용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완전한 태도검사연구는 아직 한 편도 없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의 태도를 측정하려는 교육측정적 시도는 있었다. (윤진과 조석미, 1982). 이 연구는 Erdman Palmore(1977)의 “Facts on Aging Quiz”의 양식을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24가지의 사실(事實)을 하나의 척도로 묶어, 이와같은 사실을 응답자가 어느정도 정확히 알고 있나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정도 및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노년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후에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많은 학술적 및 실용적 연구시도가 있어 왔다. 예를들면, Tuckman과 Lorge(1952, 1953)연구의 경우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태도검사는 “노인들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등 사실(fact)을 지적인 문항과, “노인이 정치·경제계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등 태도(attitude)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함께 뒤섞여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13영역의 10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긴 태도척도였지만, 이것들은 태도척도라기 보다는 사실상 의견 조사의 성격을 띤 내용들이 많았다.

그후, Kogan(1961)등은 17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17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합해 34문항의 보다 짧은 형태의 태도척도를 구성하여 한단계 발전된 태도척도를 개발하였

다(즉, The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 그러나, 이들 초기의 연구들은 모두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단일차원(單一次元: Unidimensional)으로 취급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태도측정은 단일차원상에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Kogan의 척도내의 각 문항과 전체점수와의 상관이  $r=.09$ 에서  $r=.70$ 까지 그 범위가 넓게 퍼져있다는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은 보다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Kilty와 Feld(1976)등은 노화와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에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전체 45개 문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을 추출해 낸 바 있다: <요인 I. 나이 많은 근로자의 직업성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문항 예: 노인이 젊은이의 취업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요인 II. Srole Alienation Scale에 포함된 것과 같은 노화에 따른 개인적 소외현상: (문항 예: 노인이 마음놓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요인 III. 노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들: (문항 예: 노인은 일상 생활을 마음편하게 하고 있다)>, <요인 IV. 노화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들: (문항 예: 노인들은 자녀들이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뿐만 아니라 Kilty와 Feld(1976)는 “노인의 욕구”(needs of the old people)를 측정하는 별개의 35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노인의 욕구문항들은 앞서 제시한 태도문항들과는 달리, 보다 실용적이고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신념(信念)체계에 관한 문항들 역시 요인분석에 붙여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I. 일반적 사항: 경제적 수입, 의료보호, 보건사회부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적 요구등>, <요인 II.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부현상: 교통, 통신, 영양공급등에 있어서의 거부 등>, <요인 III. 지역사회에서 남아서 살아가도록 함: 양로원등 수용시설보다는 자택에서 사망할때까지 살게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등>, <요인 IV. 지역사회와 노인들의 상호의존보완관계, 예: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노인의 재산세 납부와 교육세의 납부의무등>.

또한, Palmore(1977, 1980) 등 미국 Duke 대학교의 노년학 연구팀은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를 태도 척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facts)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노화과정사실척도

(Facts on Aging Quiz)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부당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경도노인종합연구소(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의 마에다 다이사쿠(前田大作)와 그의 동료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가족내의 3세대간의 역동 관계들에 대한 심리측정적 연구를 폭넓게 수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584명의 3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연구를 요인분석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8개의 진술문을 이용하여 세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I: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수용적·긍정적 태도 대 반발적·거부적 태도>, <요인 II: 노인과 젊은이를 통합하여 보는 태도 대 노후의 생활과 노인을 분리하여 보는 태도>, 그리고 <요인 III: 노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 대 노후의 생활과 노인을 혐오하는 태도>. 그런데 <요인 I>에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요인 III>과 관련해서는 늙은 세대일수록 노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을 미국의 자료와 교차문화적 연구를 통하여 비교하였는데 일본여성보다 미국여성이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前田, 1983). 이들은 또한 1985년 7월 미국 New York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노년학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에서 일련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족내 3세대간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노인자신의 생활만족도, 중년자녀의 노부모봉양에 대한 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측정한 것이다(Maeda 등, 1985).

한편,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누구”의 태도가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한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이란 전통적 미덕과 윤리관에 바탕을 두고 노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봉양과 존경이 당연한 것으로 강조되는 당위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과 핵가족화의 결과로 가족의 구성과 기능이 변화되었으므로 더이상 전통적 노인부양만 강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부양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중년층 자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년(Middle Age)이란 그 개념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

어 왔다. 예를들면,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을 제시했던 Robert Havighurst(1972)는 성인초기 이후의 대략 3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을 중년기로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르러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화과정을 지각하기 시작하여 이후 사회활동의 참여를 줄여나가는 성숙후기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Levinson(1978)이 제시한 인생의 계절론(Seasons of Life)에 따르면, 인생은 아동, 청소년기,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4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중기를 중년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종서, 남정길, 정지웅, 그리고 이용환(1982)은 Havighurst의 분류방법에 기초를 두고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인생단계와 발달과업”을 규정하려 하였다. 이들은 인생을 모두 7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5) 성인전기(25-35세), (6) 성인후기(35-60세)가 중년기와 관련은 된다고 하였으나 정확히 언제인가를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남자는 39세 그리고 여자는 37세 정도부터 ‘중년기’가 시작된다는 연구도 있다(윤진, 1984). 이상에서 보면, 대개 중년기는 30대 후반에 시작하여 50대 말에 이르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시기는 활동측면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결정하고 노력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의 노부모부양책임자의 지위등을 고려하여 30세 이상 49세 이하를 일단 중년으로 규정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50대 후반 특히 여성의 경우 55세 정도부터 노년기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윤진, 1984), 30대 초반부터 40대 말을 중년기의 범위로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교생 및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중심의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인생단계에 대한 이와같은 자료에 근거를 두고,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 노화과정을 일부 경험하고 있는 30-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응답자는 도시에서의 노인부양과 그 책임소재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 표집되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중년층으로서 기혼자를 중심으로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경제적 수입의 측면에서도 중·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중년층 조사대상자는 1985년 현재 모두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총 508명(중년남자 254명, 중년여자 254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8세(연령범위: 만 30세부터 49세)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94.9%가 기혼자이며(여자는 조사대상자의 96.1%인데 반해, 남자는 93.7%)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전체 기혼자의 95.7%로써 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부모양육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맡고 있는 연령층—이른바 협공받는 세대(The sandwich generation)—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5.7%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65.7%(334명)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체조사대상자의 97.4%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종교의 분포에 있어서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4.4%(175명)으로 가장 많고 기독교(30.5%), 불교(19.1%), 천주교(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한다면, 전체의 43.1%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도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기독교도가 여자조사대상자의 52.3%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3.9%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조사대상자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46.5%이고 여자의 경우는 22.4%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때, 일반적으로 이 표집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종교를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중년층 조사대상자의 직업유형은 남·녀별로 각기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조사표 문항에서 제시한 분류는 1) 공무원/군인, 2) 자영 상·공·서비스업, 3) 전문경영인, 4) 회사원, 5) 전문직, 6) 교사, 7) 과학자/기술자, 8) 농·림·수산업, 9) 가정주부 외에, 10) 기타를 포함하여 10유형이었다. 남자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에서는 사무직 또는 기술직을 포함한 회사원이 53.1%로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또는 군인이 21.3%였다. 여자조사대상자 가운데에서는 가정주부가 71.7%로서 가장 많았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기 위하여 두 종류의 경제수준 추정치를 사용하였는데, 월평균 수입액과 현재 소유하는 물품의 종류가 그것이다. 월수입액은 "3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전체의 60.7%이며 90만원 이상인 계층도 34.4%에 달한다. 이를 남녀

별로 볼때 90만원 이상인 계층이 남자의 경우 24.8%이고 여자의 경우 44.1%로서 평균적으로 여자 조사대상자 집단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물품중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39.4%이고 에어컨은 25.0%, VTR은 36.4%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집단 전체의 14.6%가 승용차, 에어컨, VTR의 세가지 품목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가지 품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15.4%이다. 소유품목의 분포에서도 월평균 소득에서와 같이 여자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이 더 높았다.

### 조사도구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의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여러측면의 요인들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본 설문지의 문항이 작성되었다. 전체문항은 50개이며, 이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1. 생물학적 및 생리적 변화
2. 성격특성의 변화
3.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4. 감각 및 지각능력의 변화
5. 학습 및 작업능력의 쇠퇴
6. 세대차이
7. 가족관계
8. 정년퇴직과 노년기의 생활
9. 노인성 질환
10. 죽음에 대한 태도
11. 기타 문항들

위의 태도조사설문지를 이용하여 30명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새로이 보충 개정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이때 각 응답자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연상하면서 각 진술문항을 Likert형 5점척도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즉, 각 문항에 대하여 '아주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중간정도'(4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같이 각각 달리 배정을 주었다. 이때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일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산하였다.

### 절 차

본 연구는 198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주택기준설정에 관한 설정"(지순, 윤복자, 윤진 그리고 조혜정, 1985)의 한 부분으로서 동시에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남자 응답자는 서울시내에 있는 대규모 기업체 2개, 고등학교 1개, 그리고 은행지점 2개 그리고 기타 방법의 접촉을 통해 252명을 얻었다. 그리고 여자 응답자는 서울시내 강남지역의 한 중고등학교 어머니회와 강서구 화곡동의 국민학교 새마을어머니회등과 기타지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선정은 서울시내에서의 중산층이상 응답자의 표집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시기는 1985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으며 미리 질문지를 배포했다가 며칠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직장인의 경우엔 직장을 통하여 배포, 회수하였으며 가정주부의 경우는 여러주부들의 모임을 통하여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간부를 만나 전달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실시단계의 구체적인 분포는 1) 기업체-전체의 20%, 2) 관공서-10%, 3)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사-10%, 4) 학교 어머니회-15%, 5) 일반인 대상의 성인교육 기구-10%, 6) 병원, 친목단체 기타-35%이었다.

위 기관에 배포된 설문지의 회수율은 평균 80.5%였다.

또한 설문지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을 하지 않거나, 면접을 요청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하였다.

## 결 과

중년기에 있는 508명(남녀 각각 254명)을 대상으로 얻어진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응자료를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그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측정은 전체 50문항을 기초로하여 두가지 단계를 거쳐서 요인분석되었다.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with iteration)과 Varimax 회전(Varimax rotated matrix after rotation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통하여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5개의 요인들은 Eigenvalue=1.00이상인 것들이며 전체변량의 62.1%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분석단계에서 얻어진 각 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다.

이와같은 표1의 5가지 내용을 요인별로 보면, <요인 I :

표 1. 5가지 주요 태도요인의 이름과 내용

요인 I :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S 9	사람은 늙어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져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37000
S16	노인이나 자식이나 손자들과 함께 동거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R)	.33884
S18	노인들은 집안일에 대해 여의가지 도움을 준다.	.43382
S19	노부모는 자녀들의 부부싸움이나 의견대립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	.54531
S30	노인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R)	.48205
S38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43145
S46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식걱정을 더 많이 한다.	.56388
S47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56755

요인 II :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S 3	대부분의 노인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R)	.42569
S17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진다. (R)	.34023
S23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R)	.51682
S24	노인들은 새로 나오는 생활용품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 (R)	.58630
S36	노인들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R)	.39136
S39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다. (R)	.37856

**요인Ⅲ : 능력감퇴 경향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S 4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R)	.38852
S22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R)	.65310
S45	노인들은 대체로 성(性)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R)	.31109

**요인Ⅳ :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S25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R)	.40389
S27	노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R)	.32610
S40	정년퇴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끝나게 된다. (R)	-.59772

**요인Ⅴ :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 대 소외변인요인**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S 8	일반적으로 노인은 사회에서 연장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34879
S15	노인들은 외롭다. (R)	.35388
S34	노인들은 어쩔수 없이 집안에서 하루를 보낸다.(R).	.59561
S35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56770

\* (R) 표시된 것은 거꾸로 채점되는 문항이다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요인Ⅱ : 행동특성의 부정적인 변화>, <요인Ⅲ : 능력감퇴경향>, <요인Ⅳ :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 그리고 <요인Ⅴ :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도 및 소외변인> 등 5가지이다.

이와 같은 5가지 요인들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으며 두가지 요인에 걸쳐 부하량이 큰 변인을 어느 한 요인에만 소속시키고 다른 요인에서는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들 5가지 주요 태도차원에 대한 명명과 변인내용은 표 1과 같다.

1)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요인——이 요인에는 모두 8개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노인들은 자신들보다는 자식걱정을 더 많이 한다”와 같은 자녀관계 그리고 기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때 “노인들이 자기의 견을 고집하거나 집착한다”는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30422이나 제2요인(행동특성의 변화요인)과 중복되므로 여기서 제외되었다.

2)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요인——이 요인에는 모두 6개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린이가 같아진다”와 같은 행동특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들이다.

3) 능력감퇴경향요인——이 요인에는 모두 3개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노인들은 대체로 성생활(性生活)을 할 능력이 없다”와 같은 능력감퇴와 우울증 경향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노인이 자식이나 손자들과 동거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문항은 그 내용상 요인Ⅰ에 소속시켰다.

4)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 요인——이 요인속에서는 모두 3개의 문항이 포함되며 “정년퇴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끝나게 된다”와 같은 사회적 유리와 경직성을 나타낸 것들이다.

5)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 대 소외변인——이 요인 가운데는 노년기의 일상생활의 측면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와 같은 문항들이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인에 포함된 24개의 문항이와 나머지 26개의 문항들이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등 서구제국의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요인가운데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영역이다(표2 참조).

**표 2. 본 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아 제외된 주요 문항 목록**

**1. 직업에서의 근무와 능력과 관련된 문제**

문항번호	문항내용
S 1	-정계나 경제계에서 너무 큰 세력을 잡고 있다.
S16	-아직도 일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S33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적은 일을 철저히 하려한다.
S11	-젊은 사람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다.
S14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봉급이나 퇴직금으로 인해서 고용자에게 부담을 준다.
S48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업전환이 어려워진다.

**2. 노년기 특성변화에 대한 일반적 관념**

문항번호	문항내용
S 2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지혜로워진다.
S 7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S28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진다.
S29	-부부간의 정이 더욱 깊어 진다.
S24	-노인들은 모습이 단정하지 못한다.
S44	-늙어갈수록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S 50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첫째, 노인이 아직도 능력이 있어 여전히 직업이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문제이다. 예를들면, 노인이 정계나 경제계에서 여전히 실권을 잡고있는 문제, 젊은 후진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장·노년기에 직업전환이 어려운 문제 등 6가지 문항들은 요인부하량이 너무 작아(.300미만)제외 되었다.

둘째, 노년기의 행동 및 성격특성에 대한 일반적 관념이 뚜렷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를들면 연령증가에 따른 지혜의 증가, 죽음에 대한 공포의 증가,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의 증가여부, 신체적 외모의 변화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중년 세대들은 서구문화에서 중요시되던 이와같은 두가지 차원을 한국노인과 노화과정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차원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논 의**

이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중년기 자녀가 보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결과, 1)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 2)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 3) 능력감퇴경향, 4)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 그리고 5)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 대 소외변인-등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특히 부각되는 점은 첫째, <요인 I :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이다. 즉 이 요인내에서는 가정의 화목, 자녀에 대한 애정과 염려, 집안일에 대한 도움 등에 대한 노인의 긍정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노인의 긍정적 측면은 Kilty와 Feld(1976), Kogan(1961), Tuckman과 Lorge(1953)등의 태도 척도에서 명확히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다. 이는 우리문화 고유의 가족내의 응집력과 노후의 자녀·손자녀와의 동거가 사회적 관습과 전통으로 뿌리박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점일 수 있다(김재은, 1974).

둘째, <요인 II :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와의 시대차이, 오래된 습관에 대한 집착,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경직성, 의견의 고집,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부적응등이 중요한 차원으로 부각된다. 이는 Kilty와 Feld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차원이며 Tuckman-Lorge(1953)의 <고령근

로자 척도)에서 나타난 노년기의 부정적 측면이 대부분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은 Tuckman과 Feld(1976)등의 내용과 크게 다른 측면들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나온 부정적 특성들은 노화과정에 따른 노인자신의 문제일뿐, 이것이 사회적으로 젊은이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젊은 세대에게 봉양의 의무를 강요 또는 기대하는 등의 청장년 세대의 생활과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들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나온 변인들은 주로 개인적 행동 및 적응 특성의 변화로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환경적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노인자신들의 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째, 〈요인 Ⅲ : 능력감퇴경향〉은 노화과정의 진행에 따른 능력의 쇠퇴와 그와 관련된 우울증 경향등을 포함하는 요인이다. 여기에는 일반적 능력의 쇠퇴로 인한 직업적 활동에서의 은퇴뿐만 아니라 성생활의 기능부전 등도 함께 포함된다. 그리고 노년기가 '우울한 시기'라고 보는 태도 또한 능력감퇴와 연관시키는 것이 특이하다.

네째, 〈요인 Ⅳ : 경직성과 사회적 유리경향〉은 노년기의 새로운 사항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과, 사회적 활동에서의 은퇴 및 역할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인적 행동특성이나 그 쇠퇴과정 이외에 다시 사회적 유리측면이 독립적으로 부각된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노인을 사회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인물로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요인 Ⅴ :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생활만족 대 소외변인-〉은 노인의 소외 및 고독, 또는 그 반대인 생활만족도 증진과 자기진작에 관한 요인이다. 이는 특히 Srole의 소외척도(Srole Alienation Scale)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들이다. 이는 또 노년기 특유의 일상생활에서의 관련한 점등을 크게 고려한 것인데 Kilty와 Feld(1976)와 Kogan(1961)에서도 나타난 특성들이다.

이상에서 보면, 최근까지 미국에서 수행된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한 태도연구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Kilty와 Feld(1976)와 비교해 볼 때 몇가지 특이한 점이 보인다. 즉, Kilty와 Feld(1976)의 연구에서는 1) 고령 근로자들의 특성(즉, 젊은이의 직장을 뺏아가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후진의 승진에 대한 장애 등), 2) 사회적 소외척도내용(즉, 미래가 밝다,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이 간다 등), 3)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예 : 노인은 생을 사랑한다, 편안하게 산다 등), 그리고 4)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예 : 자기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경제적 안정에 대해 걱정하기 등) 등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주로 '자녀 및 가족관계중심'에서 보는 요인 I은 우리문화 특유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능력감퇴(요인 Ⅲ)와 사회적 은퇴 및 유리(요인 Ⅳ)의 두가지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도 특이한 일이다. 대체로 능력감퇴와 사회적 은퇴 및 유리현상은 같은 측면으로 간주하고 또 서구의 연구들이 이러한 측면을 '노령근로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태도'로 묶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측면이 비교적 구분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Kilty와 Feld(1976), Kogan(1961)등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앞의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노인이 갖는 〈직업 생활에서의 능력의 문제〉와 〈노년기 특성변화에 대한 일반적 관념 요인〉이 서구의 연구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생활에서의 능력의 문제〉에서는 노인들이 정치·경제에서의 실권을 잡고 있는 것, 고령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업전환이 어렵게 되는 것 등이 그런 문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경제계의 실권을 청·장년층이 잡고있는 현실, 고용주(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기전에 이미 고령근로자는 은퇴하는 조기정년퇴직경향(최근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55세 정년을 제도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 직업전환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경향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노년기 특성에 관한 일반적 관념〉요인에 있어서도 서구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났던 것들이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변인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지체로와지는 경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종교에의 귀의, 운명에 대한 의존과 체념, 노후의 단정치 못한 모습 등은 서양에서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했으나 우리문화에서는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노령에 따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인의 의식과 관념속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귀의 역시 그 필요성을 노화에 따라 더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동·서양간에 비교하는 별도의 연구에서 이 문제는 더 자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외모의 변화 역시 서양에서는 노인은 '추하다', '지저분하다' '보기에 나쁘다'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지각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문화에서는 그 외모의 변화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Maeda등(1985; 前田, 1983)등의 일본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몇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일본의 3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연구에서는 크게 세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즉, 1) 노화·노후 그리고 노인에 대한 수용적·긍정적 태도 대 반발적·부정적 태도, 2) 노소를 통합적으로 보는 태도 대 상이한 존재로 보는 태도, 그리고 3) 노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 대 노후의 생활과 노인을 혐오하는 태도 등 세가지 요인이 그것들이다. 여기서도 한국의 자료에서 나오는 <자녀-가족 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화과정에 따른 <능력감퇴경향>과 <경직성과 사회적유리경향>문제가 한국의 자료에서 더욱 두드러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년이 되더라도 비교적 직업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일본과, 정년퇴직이나 사회적 유리가 50대 중반 내지 60대 전후에서 결정되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노년기의 고독,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은 일본의 요인 I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몇가지 미비점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서울의 중·상류이상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 연구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등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응답자를 노인을 부양해야할 우선적 책임을 지닌 세대인·중년층(30세-49세) 남녀로 한정하고, 특히 시간과 경비의 제약상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층만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층이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계층이 응답자로 선발된 제한점이 있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에 붙여졌던 50개의 문항들은 주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실과 신념이 혼합되어 있다. 물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실보다는 신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태도의 긍정 또는 부정적 방향을 결정짓는 문항에는 노인과 노화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신념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반응을 얻어내는 경우 반응자가 가진 태도보다는 지식의 정도를 측정할 위협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노화사실의 척도는 Palmore (1977)의 Facts on Aging Quiz나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 노화사실인지 척도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정책이 거의 전무한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노인을 부양할 책임을 전적으로 진 중년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았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즉, 중년세대들이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해 실제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요인과 그 구성변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이 도구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관한 교육효과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즉, 일정기간의 노년학 교육의 실시(예 : 6개월 또는 1년)를 전후하여 피교육자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고정관념의 감소의 정도를 측정해낼 수 있다.

셋째, 이 요인분석을 통한 태도척도는 정부당국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노인복지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수적인 도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학, 가족관계학 또는 가정관리학의 측면에서 노부모세대와 중년자녀세대간의 관점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이 척도가 기본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심리학은 물론 정신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가정관리학, 간호학 등 인접과학에서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고정관념의 연구등에 하나의 기본 측정도구로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과 이용환(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연구논총 82-7) 성남 :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남철현, 김혜련, 홍현주과 서미경(1984). **인구보건 지표 및 통계**, 서울 :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 pp 53-56.
- 윤진과 조석미(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 한국 노년학, 2, 5-15.
- 윤진(1984). 인생주기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 1984년도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초록.
- 지순, 윤복자, 윤진과 조혜정(1985).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 주택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럭키개발(주) 연구비수혜 보고서(1985년 11월).
- 前田大作(1983). 3세대 여성에 있어서의 노화·노인에 대한 태도(三世代の女性にあける老化·老人に對する態度). *老年社會學*, 18, 11-19. 일본 東京都 老人總合研究所.
- Havighurst, R.L.(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Y.: David McKay.
- Kilty, K. M.(1972). Attitudinal affect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251-256.
- Kilty, K. & Feld, A.(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toward the needs of e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1, 586-594.
- Kogan, N.(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Kogan, N.(1979). Belief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old people: A new look at some old issues. *Research on Aging*, 1(1), 11-36.
-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Y.: Knopf.
- Maeda, D., Brody, E., Campbell, R., Okuyama, S., Shimizu, Y., and Naomi, M.(1985). Attitude of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women toward aging and old people.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New York. 1985. *The Book of Abstracts*, pp 251.
- Morris, J.N. & Sherwood, S.(1975). A retesting and modification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lale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30, 77-84.
- Palmore, E.(1977). Facts on aging: A short quiz. *Gerontologist*, 17, 315-320.
- Palmore, E. (1980). The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of findings. *Gerontologist*, 20, 669-672.
- Tuckman, J., & Lorge, I.(1953).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
- Tuckman, J., & Lorge I.(1954). Old people's appraisal of adjustment over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22, 417-422.

원고 초본 접수 : 1988. 4. 20  
 최종 수정본 접수 : 1988. 7. 30

---

---

**Data**

---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Aging(I)**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possible dimensions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the aging processes of the middle-aged Korean people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otal of 508 respondents, 254 for each sex respectively, ages from 30 to 49(Mdn=38yrs) were recruited in Seoul. The preliminary attitude inventory was consisted of 50 items concerning eleven different aspects as follows: 1) biological aging 2) personality change 3)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4) sensory and perceptual ability change 5) deterioration of learning abilities and performance 6) generation differences 7) family relations 8) retirement 9) senile / chronic diseases 10) attitude toward death and dying and 11) miscellaneous. The principal-component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shows the attitude of middle-aged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processes can be identified as following five factors: 1) positive aspects of family relations 2) negative changes in behavior characteristics 3) deterioration of abilities 4) rigidity and social disengagement 5) negative aspects of everyday life events. Especially the factor of the positive aspects of family relation was discussed.